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5만개 육박

###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시키는 것 목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한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병상이 1만3000여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모형이다.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 및 환자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이며, 4만 9067개 병상에 이른다. 연도별 서비스 병상 총수(괄호안 신규 병상)는 다음과 같다. △2015년=7443개(5080개) △2016년=1만8646개(1만1203개) △2017년=2만6381개(7735개) △2018년=3만7288개(1만907개) △2019년=4만9067개(1만3250개).

2019년 신규 병상 증가율은 2015년 이래 최대이며, 사업 참여가 활발했던 2016년과 비교해도 약 120%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본부 전담조직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관의 간호부장 등 현장전문가로 팀을 구성했다.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11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해 삼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에서 4개 병동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간호인력이 서울 및 삼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많은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2019년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평가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7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72억원→76억원)를 늘리고, 지원품목(7개→10개)을 확대했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정해 간호 필요도에 근거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및 보상방식 도입 기반을 마련했고, 제공기관 모니터링 체계 보완·개선으로 서비스 질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관·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 의사 국시에 2022년 '컴퓨터시험' 도입

### 치과의사-한의사는 2023년부터 시행

한국보건교육진흥원(원장 이윤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을 현행 지필시험 방식에서 데스크탑 PC 기반의 컴퓨터시험(Computer Based Test, CBT)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CBT를 첫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2023년 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과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적용할 예정이다.

CBT는 안정성이 검증되고 선진화된 시험방법으로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내 주요 시험기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 시험은 CBT 도입이 보건교육진흥원 국가시험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 시험은 CBT 전산프로그램 개발, 모의시험 시행 등 도입 준비를 하고 있으며, CBT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도입 초기에는 타기관의 시험장을 활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특성화고(상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조체계를 갖췄다. 향후 안정적인 고지능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상설시험장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윤성 원장은 "CBT는 그동안 종이시험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문제 등 실제 임상 상황에 가까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같은 시험방식 변화는 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보건교육진흥원 배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cc@

##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명 넘어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암관리위원회에 보고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약 187만명이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40만5032명) 유병자 수가 전체의 2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암(28만9223명), 대장암(25만1063명), 유방암(21만7203명), 전립선암(8만6435명), 폐암(8만4242명) 순이었다.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 순이었다.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가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5.7%)인 103만9659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4%였다. 약 10년 전(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54.1%)보다 1.3배(16.3%p 증가) 높은 수준이다.

5년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약 10년 전(2001~2005년)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76.5%, 18.5%p 증가), 간암(35.6%, 15.1%p 증가), 폐암(30.2%, 13.7%p 증가), 전립선암(94.1%, 13.1%p 증가)이었다.

암종별 생존율로는 갑상선암(100.1%), 전립선암(94.1%), 유방암(93.2%)의 생존율이 높았다. 간암(35.6%), 폐암(30.2%),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췌장암(12.2%)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발

생한 암환자는 23만2255명(남자 12만 2292명, 여자 10만 9963명)으로 전년도(23만1236명)에 비해 1019명(0.4%) 증가했다.

2017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다.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 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도 대비 6.6명(2.3%) 감소했다. 암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씩 감소하고 있다.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6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에 달했다. 남자(기대수명 80세)는 5명 중 2명(39.6%), 여자(기대수명 86세)는 3명 중 1명(33.8%)이다.

보건복지부는 "암 조기검진, 치료기술 발달 등으로 전체적인 암생존율이 증가해 암생존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우리나라의 암 관리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암데이터 사업을 통해 난치성 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등 근거 기반 정책과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cc@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 최대 3.3배 증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최대 3.3배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기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9.4% 증가했다.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64%)가 여자(3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51.4%를 차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질병이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 이상이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45.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 안(6.1%) 순이었다.

활동별로는 일상생활(31.1%) 중에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치료 중(8.2%), 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0%)에 발생했다.

환자의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였다. 이는 2017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2008년 대비 각각 3.4%, 6.4% 증가했다.

또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8년 1.9%, 2014년 12.9%, 2017년 21.0%, 2018년 23.8%로 증가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숙 기자 jslcc@

## 2020년 2월 교육 개최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2020년 2월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 교육 (기본과정)	프리젠테이션 교육 (심화과정)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일시	2020년 2월 6일(목)	2020년 2월 12일(수)~2월 13일(목)	2020년 2월 25일(화)
인원	80명	60명	80명
장소	KNA연수원(용인)		
신청기간	2020년 1월 10일(금)~1월 29일(수)	2020년 1월 10일(금)~2월 7일(금)	2020년 1월 10일(금)~2월 16일(일)

\* 신청방법: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해당 프로그램명 검색 → 신청 및 결제

### 보건교사 최단기 합격 솔루션

## 전공보건 임수진

# 수강생 2명 중 1명은 초수 최종 합격! \*

# 직강 심화스터디반 전원 1차 합격! \*\*

초수생도 단번에 합격하는  
**원전학습 커리큘럼**  
막걸리지 말고, 도전하세요!

· 이벤트 ·  
**신규회원 가입선물**  
교육학 무료강의 제공

KG 에듀윌 교원임용 희스/샘플러스

ssamplus.com  
문의 1544-0678

### 교원임용학원 강의만족도 1위 해커스임용

해럴드 선정 2018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교원임용학원 강의만족도' 부문 1위

## 2019년 수석, 차석, ~5등 이내 31명 합격!

비교불가 합격지역

경기 초등, 경기 중등, 인천, 부산 중등,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충남, 충북, 경북 초등, 전남, 전북, 제주도

## 김기영 전공보건

1월 10일(금) 09:00 **대개강**

1주차 청강 이벤트 무료!

2021대비 연간 패키지

42% 할인!

12월 31일(화)까지 교육학 연간패키지 40% 할인!  
(단, 전래연 교육학 제외)

## 신태식, 전태련, 이지원, 이이수, 설보연 5인 5색 교육학 논술

본관 | 미네르바 빌딩 별관 | 메가스터디타워 6층

02 566 6860

해커스임용

teacher.hackers.com

보건교사를 위한 새로운 결심

## 2021학년도 보건임용 완벽대비는 박문각!

### 신희원 보건 교사

서울 보건임용 수석합격  
평) 박문각임용 전문보전 대표강사  
前) 서울 ○○초등학교 보건교사

단기합격의 힘, 이해분석의 최강강좌!

신희원 보건 [2021대비 연간패키지], [1~2월 강의] 대개강!

### 오상준 보건 교사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 / 서울대 간호학 박사과정  
前)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前) KOICA PROJECT MANAGER

젊은 감각으로 핵심을 꿰뚫는다!

오상준 보건 [1~2월 강의] 판매 예정!

## 2021학년도 보건교사 임용 대비 교육학 논술 5인 5색

2021 임용대비 박문각 최강 교수진들과 함께라면 합격은 문제없다!

2021 대비 연간패키지 | 1-2월 기본이론반 | 다양한 혜택 제공  
완 논문 없이 합격까지 지원 | 기초부터 전문에 | 원서, 무료 강의 등 제공

2020년 경자년! 합격 하기 위한 연간계획!  
박문각임용이 푸짐한 선물로  
여러분의 2020년을 응원합니다!!

[신청대상] 2020년 연간패키지/1-2월 정규 인간 수강생  
[신청기간] 2020년 12월 27일(금)~2020년 1월 31일(금)  
[결과발표] 2020년 2월 6일(목) 예정

PMG 박문각임용 www.pmg.co.kr | 학원 021814-7030 | 온라인 0213489-9500

### 24년 전통 의료용 압박스타킹 전문

식약처등록, ISO9001인증, 허가부품, 저림, 통증 완화, 선호도 우수

## 렉스타® 의료용 압박스타킹



종아리형  
**505**

무릎형  
**201**

도고  
압박스타킹

(주)도고메디칼  
www.dogomedical.co.kr  
고객센터 02-3664-8080